

일제 강점기 관립 중등학교 기숙사 건축에 관한 연구

이정우^{1*}

¹배재대학교 건축학부

Study of the Dormitory Architecture of Governmental Secondary School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Jeong-Woo Lee^{1*}

¹Division of Architecture, Pai 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중등학교 건축을 구성하는 필수시설이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기숙사 건축의 계획 특성을 국가 기록원 소장 도면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항목은 배치 특성, 그리고 기숙사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들인 개실동, 식당동, 사감실 영역 등의 계획 특성들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영역은 교사동 영역 후면에 인접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기숙사 영역은 남향을 원칙으로 하는 개실동들의 병렬배치가 배치의 기본형태가 되면서 식당동, 사감실 영역 등은 부지 상황에 맞추어 배치되었다. 3) 기숙사 개실동의 단위 평면은 대체로 한국인 학교의 경우 온돌형에 소형평면이 일본인 학교에는 다다미 마감에 자습실과 침실이 구분되어 있는 대형 평면이 적용되었다. 4) 식당동은 식당 영역, 취사장·욕실 영역 등으로 구성되며 일본인 학교의 경우 매점 영역이 함께 계획되었다. 식당의 평면 형상은 좁고 길며 복도가 연결해 있어 식당동 전체 평면은 편복도형 블록플랜과 같은 형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5) 사감실 영역은 차지하는 면적은 많지 않았지만 전체 기숙사를 대표하는 영역으로 상징적으로 보이도록 배치나 의장상의 고려가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dormitories for secondary school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by analyzing the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dormitory was one of the essential facilities in secondary schools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in this area. The analysis items were the site plan and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student bedrooms, dining hall, and supervisor's area, which were the main elements of the dormit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Generally, the dormitory area was placed in the rear of buildings for teaching with a close connection. 2) The student bedroom wings were laid out in parallel to the south as a rule making the typical site plan pattern for a dormitory, whereas the other parts of dormitory, such as the dining hall and supervisor's area were placed in the site conditions. 3) Generally, the unit plans of bedrooms for Korean schools were the ondol type and were small in size, whereas those for Japanese were the tatami type and large in size with separate study and sleeping areas. 4) The dining hall annex was made up of a dining hall and kitchen-bathroom area in general. For Japanese schools, the school store area was added to these areas. The typical shapes of dining hall plans were narrow and long with an adjacent corridor, so the overall plan of the dining hall annex was like that of a single-corridor type block plan. 5) The supervisor's area was a smaller part of the dormitory but it was considered to be a symbolic part of the whole dormitory in site planning and design.

Key Words : Secondary School Architecture, Japanese Colonial Era, Dorm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Jeong-Woo Lee(Pai Chai Univ.)

Tel: +82-10-3235-0204 email: yvan1@pcu.ac.kr

Received May 13, 2014

Revised June 9, 2014

Accepted August 7, 2014

1. 서론

일제강점기 중등학교는 그 수가 적었기 때문에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필수시설로서 학교건축을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그동안 일제 강점기 학교건축에 관한 연구는 교사동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기숙사 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일제시기 학교건축도면 콘텐츠’[8]에 공개되어 있는 관립 중등학교의 기숙사 관련 도면들을 대상으로 그 계획특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관립 중등학교는 1911년부터 1924년까지 총독부 관리 하에 있던 인문계 학교들로 근대 중등교육 시설 전개과정의 초기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일제시기 학교건축도면 콘텐츠’에 공개되어 있는 기숙사 도면들은 관련 자료들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거의 유일하고 방대한 도면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관립 중등교육시설과 ‘일제시기 학교건축도면 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참고문헌 [4, pp169~171] 참조)

‘일제시기 학교건축도면 콘텐츠’에는 총 25개의 중등교육시설 도면이 공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기숙사 건축과 관련하여 분석 가능한 도면이 남아 있는 21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참조. 단, 학교별로 도면이 남아 있는 정도에 차이가 커서 분석 항목별로 대상교 수에 차이가 있음.)

분석 항목은 기숙사의 배치특성과 기숙사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들인 개실동, 식당동, 사감실 영역 등의 영역별 계획특성들이다. 기본적으로 ‘일제시기 학교건축도면 콘텐츠’에 게재되어 있는 도면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계획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사, 개별 학교사, 일제강점기 학교 건축 관련 기준 등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았다.

[Table 1] Case Schools

type of school		A	B
for Korean	Higher Common School	13	14
	Girls' Higher Common School	2	2
for Japanese	Middle School	6	9
total		21	25

A : no. of case schools
 B : no. of schools in 1924 ("Statistics Annual Report of Chosun Government-general")

2. 기숙사 계획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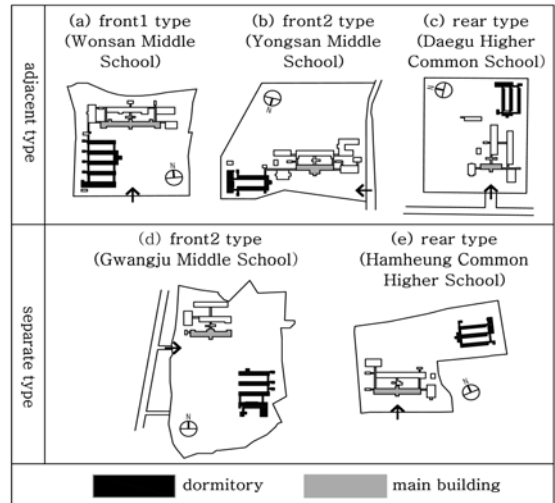
2.1 배치 특성

2.1.1 학교 부지 내 입지 특성

분석대상 21개교들 중 3개교는 별도의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하였으며 나머지 18개교는 교사동 영역과 같은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립하였다. 이들 18개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영역이 배치되는 특성을 교사동 영역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및 Fig. 1 참조)

[Table 2] site plan types of dormitory (unit:schools)

-		front 1 type	front 2 type	rear type	total
same site	adjacent type	3	3	8	14
	separate type	0	1	3	4
	sub total	3	4	11	18
separate site		3			3
total					21



[Fig. 1] illustration of site plan type

첫 째, 교사동 영역과 기숙사 영역의 인접 정도에 따라 인접형과 이격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Table 2에서처럼 인접형으로 배치한 사례가 더 많았다. 이격형 사례 4개교 중에서도 두 개 학교의 초기 계획안(공주고보, 광주교보)은 인접형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접형이 보다 일반적인

계획경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접형의 경우 Fig. 1의 (a), (b)에서처럼 교사동과 기숙사를 회랑으로 연결하는 배치방식을 최선으로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총 14개 인접형 사례 학교들 중 6개 학교가 회랑으로 교사동과 연결되어 있다.)

둘 째, 교사동 영역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전면형과 후면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전면형은 본관의 정면을 기준으로 기숙사 영역이 이 보다 전면에 배치되는 경우를 후면형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전면형은 다시 정문에서의 이격 정도에 따라 두 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면형1은 기숙사 영역이 교사동 영역보다 전면에 배치되면서 정문에서의 거리도 교사동 영역보다 가까운 경우이다. 전면형2는 기숙사 영역이 교사동 영역 전면에 배치되지만 정문에서의 거리는 교사동 영역보다 먼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례 대상 교들을 분류해보면 전면형2와 후면형이 15개 사례로 일반적이다. 이는 교사동 영역이 학교 전체의 주공간이고 기숙사 영역은 지원공간이라는 점, 또 일제 강점기 학교건축에서 본관은 전체 학교의 상징으로 가장 중요하게 계획되는 건물[4, p171]이라는 점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1.2 기숙사 영역 내 배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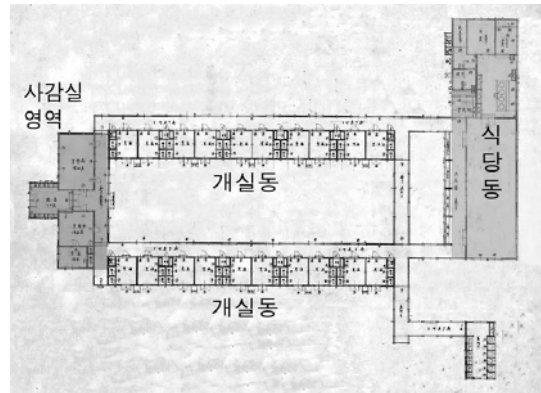
기숙사의 배치 특성을 기숙사 영역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숙사 영역은 크게 개실동과 식당동 그리고 사감실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사감실 영역을 ‘사감동’이라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개실동이나 식당동과 달리 사감실 영역은 별동으로 계획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례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는 별동과 유사한 형태로 계획되어 있어 사감실 영역은 개실동 및 식당동과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Table 3은 분석대상 21개 교들을 사감실 영역의 별동 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구분한 것이다. 완벽하게 별동으로 계획된(complete annex) 사례는 5개교 밖에 없지만 Fig. 2에서처럼 사감실 영역이 개실동에 직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례들은 별동과 유사한(similar to annex)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별동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 수는 총 15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둘 째, 개실동은 남향배치를 절대적인 원칙으로 하며

[Table 3] type of dormitory supervisor’s area

type		no. of case schools	
annex type	complete annex	5	15
	similar to annex	10	
non annex typ		4	
unknown		2	
total		21	



[Fig. 2] block plan of Dongrae Higher Common School (from [8])

이 때문에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될 경우 전형적인 일자형 블록들의 병렬배치가 기숙사 영역 배치의 기본 형태가 된다. 반면 식당동, 사감실 영역 등의 공용부들은 항조건에 크게 제약받지 않으며 부지 상황에 맞추어 배치되었다. 단 사감실 영역은 기숙사 전체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배치되었다.(이에 대하여서는 ‘2.4 사감실 영역 계획특성’에서 보충 설명함.)

이에 따라 Fig. 2 동래고보의 예처럼 개실동들은 남향을 취하며 병렬 배치되고 식당동, 사감실 영역은 개실동과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실동과 직각방향으로 배치되는 형태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18개교 중 12개교가 이러한 배치 형태를 가지고 있음.)

2.2 개실동 계획 특성

분석대상 학교 21개교 중 단위평면을 파악할 수 있는 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단위평면 유형을 조사해보면 Table 3과 같다. 표에서 전체 사례수가 16인 것은 경성고보에 두 가지 유형의 단위 평면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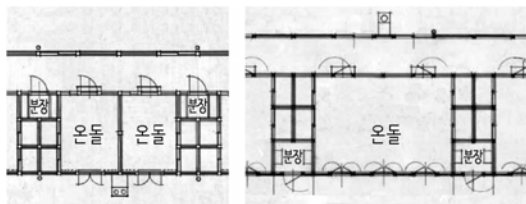
단위평면은 일차적으로 온돌형과 다다미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온돌형은 경성고보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 학교에 다다미형은 일본인 학교에 적용되었다. 또 온돌

형은 모든 사례가 단층이며 다다미형은 경성고보 1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2개 층으로 계획되었다.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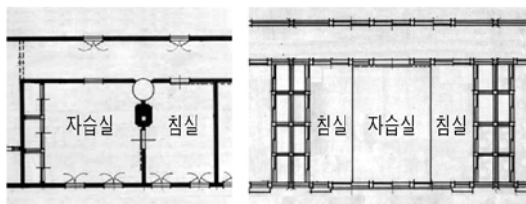
2.2.1 온돌형 단위평면

온돌형 단위평면은 경성여고보 1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온돌영역, 수납공간, 분장(焚場: 온돌 아궁이 점검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경성여고보는 단위실이 온돌영역과 다다미영역으로 이분되어 온돌형과 다다미형의 중간적인 특성을 띄고 있지만 온돌이 설치되어 있어 온돌형으로 분류하였음) 온돌형 단위평면은 크기를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면 5종류로 구분되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소형과 대형의 구분 기준은 분장의 설치개수가 될 수 있는데 Fig. 3에서 보듯이 대형평면은 난방면적이 넓기 때문에 단위실 양측에 분장이 설치되며 소형은 한 쪽에만 설치된다.

각 단위 평면별로 수용인원을 몇 명으로 계획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하지만 동일한 단위평면 유형으로 계획되었던 광주고보와 동래고보 졸업생들의 회고록을 보면 1실당 4인이 거처했다는 기록이 있어 소형은 4인, 대형은 8인 정도가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 p165/ 2, p235]



(a) ondol type
left: small size/ Hambuk Kyongsung Higher Common School
right: large size/ Sinuiju Higher Common School



(b) tatami type
left: Pyongyang Middle School
right: Gwangju Middle School

[Fig. 3] unit plan of student bedroom (from [8])

[Table 4] type of unit plan

-		size	area	no. of case schools	
ondol	small	3.64×3.64 m (12×12 ch)	13.25 m ² (4 py)	4	8
		4.55×3.64 m (15×12 ch)	16.56 m ² (5 py)	1	
		6.36×2.73 (21×9 ch)	17.36 m ² (5.25 py)	2	
		4.09×4.55 m (13.5×15 ch)	18.61 m ² (5.63 py)	1	
	large	8.18×4.55 m (27×15 ch)	37.22 m ² (11.25 py)	1	
sub total				9	
tatami	small	4.30×3.82 m (14.18×12.6 ch)	16.43 m ² (4.96 py)	1	
		8.64×4.55 m (28.5×15 ch)	39.31 m ² (11.88 py)	1	6
	7.27×6.36 m (24×21 ch)	46.24 m ² (14 py)	1		
	9.09×5.45 m (30×18 ch)	49.54 m ² (15 py)	3		
	10.91×5.45 m (36×18 ch)	59.46 m ² (18 py)	1		
sub total				7	
- ch : cheek (= 30.3 cm) / py : pyeong (=3.3 m ²)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Table 4에서 보듯이 소형평면 사례수가 많고 난방효율이나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대형평면보다는 소형평면형이 더 선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론하는 또 다른 이유는 초기에는 대형평면으로 계획되었던 신의주 고보의 경우 실행안에서 대형평면을 둘로 나누어 소형평면으로 변경하면서 도면상에 ‘온돌개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의주고보는 온돌개조 공사를 하면서 분장의 위치도 개실 앞쪽에서 복도 쪽으로 변경하는데 이 점 역시 분장의 위치와 관련해 선호되거나 개선된 계획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온돌형 단위평면 사례들에서 분장의 위치는 모두 복도 쪽인 경우와 개실 앞 쪽인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분장의 위치가 복도 쪽일 경우 실내공간인 복도에서 분장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상 유리하다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온돌형 단위평면의 바닥마감은 도면상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복도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여학교 두 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흙바닥 마감으로 각실 앞에서 신발을 벗는 구조로 되어 있다.

2.2.2 다다미형 단위평면

온돌형과 달리 다다미형은 경성고보의 소형평면형 1 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단위실이 자습공간과 취침공간으로 구분된다.(Fig. 3 참조) 도면상에는 자습실, 침실 등의 용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두 공간이 실로 구축된 경우는 다다미형 사례 중 유일하게 폐치카 난방을 채택한 평양중학교를 제외하면 없다. 대신 바닥 마감을 달리 하고(자습실: 마룻바닥, 침실: 다다미) 단 차이(1.3척=약 39cm)를 두어 두 공간을 구분하였다.

다다미형 단위평면은 경성고보의 소형평면을 제외하면 모두 온돌형의 대형평면 면적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로 계획되었다. 이는 자습공간과 취침공간으로 생활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형평면보다 대형평면이 유리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활공간을 구분해 일인당 면적이 클 수밖에 없는 계획방식이 일본인 학교들에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학생에 대한 차별적 계획기준이 적용된 사례로도 보여 주목된다.

취침공간과 자습공간의 구분 계획은 일본의 중학교 건축 관련 기준들에 포함 되어있을 만큼 일반적인 계획 원칙이었다. 취침공간과 자습공간을 구분하여 계획하는 규정은 일본의 중학교건축 관련 기준의 초기 예인 1891년 ‘심상중학교 설비규칙(尋常中學校 設備規則)’에서부터 이차세계대전 이전 일본 학교건축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했다고 평가되는 1904년 ‘학교건축 설계요항(學校建築 設計要項)’에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5, p91, p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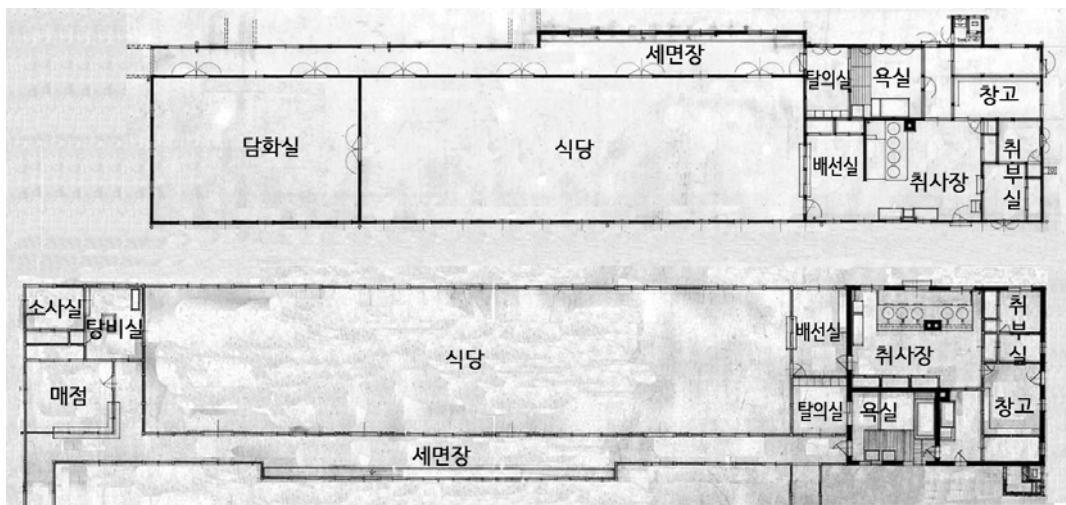
이는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교육이 강조된 일본 중학교에 사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이 주요한 계획조건이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종결 교육기관의 성격을 강요했던 한국의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2.3 식당동 계획특성

Fig. 4는 한국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로 구분하여 각각 가장 규모가 큰 기숙사 식당 사례들을 선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식당동에 계획했던 실들을 파악해볼 수 있다. 식당동은 크게 식당 영역과 취사장·욕실 영역으로 구성된다. Fig. 4 상단 신의주고보 식당동 평면에서 식당 옆에 계획되어 있는 담화실은 설치된 경우가 많지 않아 필수적으로 계획되는 실이라기보다는 개설동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건설된 식당의 여유 공간을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Fig. 4 하단 대구중학교 식당동 평면에서 취사장 영역 반대편에 배치되어 있는 매점 영역은 일본인 학교들에만 계획되어 있다. 식당동을 구성하는 각 영역들의 계획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1 식당 영역

식당의 규모는 최소 52.89㎡(16평:경성여고보)에서 최대 380.17㎡(115평:원산중)까지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 이는 학교별로 기숙사 수용인원에 차이가 있고 분석대상 도면들 중에는 향후 증축을 고려한 초기 단계의 도면들



[Fig. 4] dining hall plan : Sineuiju Higher Common School(upper) / Daegu Middle School(lower) (from [8])



[Fig. 5] dinning hall of Dongrae Higher Common School (from [1])

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식당의 평면 형상을 세장한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당의 장변방향은 7.27m(24척) ~ 41.82m(138척)로 사례별로 차이가 큰 반면 단변방향 경간은 5.45m(18척) ~ 9.09m(30척)로 큰 차이가 없다. 또 복도를 길게 연결시켜 식당동은 편복도형 블록플랜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목구조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와 경성제이고보에서 교사동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식당을 가교실로 활용했던 것처럼 여러 개의 실로 나누어 쓸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5는 ‘동래 고등학교 팔십 년사’에 실린 기숙사 식당의 내부사진이다. 촬영연도가 불분명하지만 분석대상이 되는 동래고보의 도면들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숙사 식당의 사진으로 추정된다. 이를 보면 사감으로 보이는 지도교사가 중앙에 앉아 있고 학생들은 두 옆로 등받이가 없는 목제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어 기숙사 식당은 입식 사용을 전제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당의 바닥은 대구고보, 전주고보 등 두 개 학교가 흙바닥 마감으로 계획된 것을 제외하면 한국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 모두 마룻바닥으로 계획하였다. 두 학교의 설립연도는 1910년대로 다른 학교들보다 다소 빠르다. 이 때문에 기숙사 식당을 흙바닥으로 마감하는 것을 1910년대에 지어진 기숙사들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1910년대에 설립된 일본인 학교 기숙사 식당들의 바닥 마감이 모두 마룻바닥인 점을 고려하면 건립연도가 앞섰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사비 절약을 위한 측면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식당에 접해 있는 긴 복도에는 복도의 폭을 조금 넓혀 세면장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식당 관련 도면이 남아 있는 12개 학교 중 10개 학교에서 이런 계획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두 개 학교도 식당과 가까운 곳에 있는 연결 복도에 세면장을 계획하였다. 세면장을 설치한다는 일반적인 원칙 때문에 개실동 복도를 마룻바닥으로 처리한 일본인 학교들도 모두 식당동의 복도 부분은 흙바닥 마감으로 계획하였다.

2.3.2 취사장·욕실 영역

취사장에는 취사장, 취부실(炊夫室), 창고 등 취사 관련 실들이 부속되며 Fig. 4처럼 배선실이 별도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욕실이 취사장과 인접하여 계획된 것은 사용자의 행태를 고려했다기보다는 물과 불을 사용한다는 공통점 때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불을 사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식당동 역시 개실동과 마찬가지로 모두 목구조이지만 Fig. 4 하단의 대구중 사례처럼 취사장·욕실 영역만을 조적조로 계획하기도 하였다.(대구중, 부산중, 원산중, 평양중 등 총 4개 사례)

상수도가 일반화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상수도의 도입여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다. ‘수도전취설위치도(水道栓取設位置圖)’(경성여고보), ‘수도포설배치도(水道布設配置圖)’(광주고보) 등의 도면이 존재하여 상수도가 도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신의주고보에서처럼 취사장 내부에 우물을 배치한 학교도 있었다. 하지만 상수도의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취사장 평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3.3 매점 영역

전술했듯이 매점, 소사실(小使室), 탕비장(湯沸場)으로 구성된 매점영역은 일본인 학교 기숙사에만 설치되었다. 소사실은 학교시설 관리자를 위한 공간으로 끓인 물을 공급하는 탕비장이 인접 배치되며 교사동 근처에 펄수시설로서 설치된다.(불을 사용하는 특성상 교사동이 목조일 경우 별도로 구성됨.) 분석대상 학교들도 대부분 교사동 가까운 곳에 소사실·탕비장이 설치되거나 계획되었다. 따라서 일본인 학교의 경우 교사동 근처와 기숙사 식당동에 각각 소사실·탕비장이 계획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6개 일본인 학교 중 5개 학교에서 이런 계획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기숙사 식당동에 설치된 소사실은 기숙사 전담 소사를 위한 공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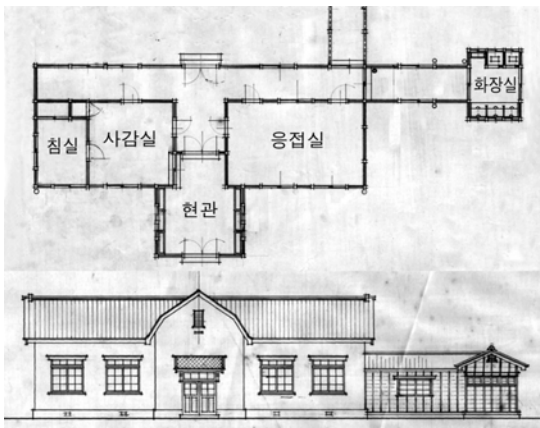
고려한 것이며 이는 일본인 학교 기숙사의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2.4 사감실 영역 계획특성

사감실 영역은 사감실, 침실 및 응접실(담화실로 표기된 경우도 있음), 현관, 사감 전용 화장실 등의 실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Fig. 6 참조) 사감의 사무공간인 사감실에는 접수창구가 설치되며 침실이 부속된다. 사감의 숙소인 침실은 온돌개조 공사를 계획한 신의주고보 1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마룻바닥 마감이다. 전술했던 것처럼 한국인 학교 기숙사 침실은 온돌을 설치했지만 사감실 부속 침실은 비온돌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사감실과 침실을 합친 면적 정도로 계획되는 응접실의 정확한 기능은 알 수 없다. 사감실 부속 회의실이나 학생 상담실 정도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본관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었던 응접실처럼 외빈 방문시를 고려한 의전 장소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관 역시 학생들 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공간이지만 각 개실동에 별도의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돌출 현관 형태로 의장상의 고려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출입보다는 의전적 성격이 강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감실 영역은 개실동이나 식당동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은 많지 않지만 기숙사 전체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나타난다.



[Fig. 6] dormitory supervisor's area of Gwangju Common Higher School (from [8])

첫 째, 전술했던 것처럼 사감실 영역은 향에 관계없이 기숙사 전체의 입구에 해당하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이는 마치 교사동 영역에서 일반 교사동은 남향 배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본관은 정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되었던 것과 유사한 특성이다.[4, p180]

둘 째, 사감 1인을 위한 공간임에도 꽤 많은 면적을 할애하고 있다. 사감실 자체의 면적도 교장실과 유사한 정도의 크기이며 여기에 부속 침실, 그리고 사감실 부속 회의실로도 볼 수 있는 응접실까지 합친다면 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할애 받고 있다.

셋 째, 앞에서 언급한 돌출 현관의 계획이다. 같은 기숙사 영역내의 건물들이지만 학생들의 주 사용공간인 개실동이나 식당동에는 돌출 현관을 계획하지 않았다. 이는 건물의 중요성, 상징성 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의장요소인 돌출 현관을 통해 건물들간의 상대적인 위계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교장실과 교무실 등이 있어 학교의 중심공간이었던 본관이나 주요 의식이 행해졌던 강당 등에만 돌출 현관이 계획되었으며 일반 교사동, 공소 등에는 계획되지 않았다.(공소는 옥내체조장 또는 학생대기소의 성격을 갖는 공간으로 강당과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강당과 공소의 계획특성은 참고문헌 7 참조)

넷 째, 사감실 영역의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개실동이 단층으로 구성되는 한국인 학교 기숙사에서 특히 명확하게 나타난다. 사감실 영역은 개실동이나 식당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전체 기숙사 영역에서 왜소하게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감실의 층고는 일반 개실동 보다 높게 계획하여 사감실 영역이 외관상 두드러져 보이도록 계획하였다.

다섯 째, 사례수가 많지는 않지만 3개 학교에서 개실동과 식당동은 비늘판벽 마감으로 사감실 영역은 장와 모르타르 마감으로 외벽마감에 차이를 두었는데 이도 역시 사감실 영역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3. 결론

이상에서 일제강점기 관립 중등학교 기숙사의 계획특성을 국가기록원 소장 도면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숙사 영역은 교사동 영역 후면에 인접하여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경향이었다.
- 2) 기숙사영역은 크게 개실동과 식당동 그리고 사감실 영역으로 구분되며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개실동들의 병렬 배치가 기본적인 배치형태가 되면서 식당동과 사감실 영역은 부지 상황에 맞추어 배치되었다.
- 3) 개실동의 단위 평면은 대체로 한국인 학교의 경우 온돌형에 소형평면이 일본인 학교에는 다다미 마감에 자습실과 침실이 구분되어 있는 대형 평면이 적용되었다.
- 4) 식당동은 식당 영역, 취사장·욕실 영역 등으로 구성되며 일본인 학교의 경우 매점 영역이 함께 계획되었다. 식당의 평면 형상은 좁고 길며 복도가 연결해 있어 식당동 전체 평면은 편복도형 블록플랜과 같은 형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5) 사감실 영역은 차지하는 면적은 많지 않았지만 전체 기숙사를 대표하는 영역으로 배치나 의장상의 고려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특성들을 통해 일제 강점기 관립 중등학교 기숙사 건축의 기본적인 계획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특성들 이면의 계획 배경이나 이들 기숙사에서 이루어졌던 생활양상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교육 시설사에서 가지는 의미 등은 연구 분량상의 한계와 자료의 부족 등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는 연구 자료의 추가 발굴과 함께 후속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Reference

- [1] Dongrae High School, "80 Years History of Dongrae High School", 1979
- [2] Gwangju Jeil High School, "65 Years History of Gwangju Jeil High School", 1986
- [3] Joo, Sang-Hun, Jeon, Bong-Hee,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Layout Programs through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f Governmental Middle and High Schools of Seoul in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5 no5, pp201~212, 2009. 05
- [4] Joo, Sang-Hun, Jeon, Bong-Hee, "A Study on the Scheme of the Main Building of Governmental Middle Schools from 1911 to 1924 in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5 no11, pp169~180, 2009. 11

- [5] Kanno, Makoto, "Japanese School Architecture : vol 2", Bunkyo News, 1983
- [6] Kyeongbuk High School, "70 Years History of Kyeongbuk Middle and High School", 1986
- [7] Lee, Jeong-Woo, "A Study on the Gongso and Auditorium of Governmental Secondary School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vol 14 no2, pp336~338, 2013
- [8] <http://theme.archives.go.kr/next/dwg/dwgMainView.do>

이 정 우(Jeong-Woo Lee)

[정회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학교건축